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4남, 6여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집회 후 선교회장단 모임이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하동 무농약 매실을 판매합니다. 5kg 큰 것 34,000원, 작은 것 27,000원, 황매실 10kg 70,000원입니다. 1층 로비에서 주문 받습니다.

박대웅 씨와 강지영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7일(토) 낮 12시 감신대 웨슬리채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6월 4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에 꼭 참여합시다.

행 1:6~14 / 시 68:1~10, 32~35
벧전 4:12~14 / 요 17:1~11

단 5:1~6

오늘 식당 봉사 : 박성실 운영미 김향자 김혜정 류정옥 이광재 허호범
 다음 주 식당봉사 : 권미숙 노성희 조경자 고훈준 윤찬란 김윤수 김대근
 오늘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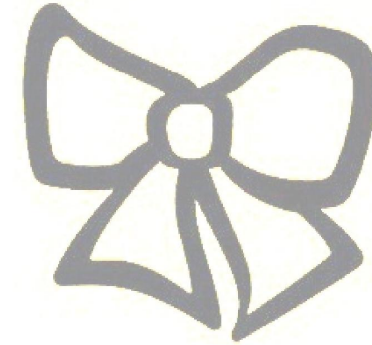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그 누구보다 힘들어할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주십시오. 벌써 사람들에게 잊힐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그들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 후보 간의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선거운동이 사실에 의거한 정책대결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만 뽐히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가가 한층 진일보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권미정	김근종	정옥영	김동호	김순자	김영아	김인걸
문영혜	김일랑	이은옥	김재환	김진선	김재홍	최희영	김정진	김혜정
김정훈	이진영	김철수	유영남	김홍기	문홍일	이미혜	민병배	문현미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박상욱	박옥식	박윤숙	박창운	허정윤	방문성
박혜경	배삼순	시시권	백경임	신진식	변혜정	안세진	오재형	임고운
오진훈	노순옥	왕수명	유상진	유은정	윤성종	김윤정	이경남	이국노
김민화	이동천	이봉옥	이용현	이주경	이진경	한양미	임승동	백혜숙
임영	정경례	임주빈	최현옥	장영숙	전인섭	정복순	조병주	최미자
최은미	최종원	한상균	한성건	정지혜	한완식	임정자	허명선	홍순복
홍춘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무명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남종	오복순	김용태	박정숙	김진중	노성희	김만균
박병구	신진식	변혜정	유청빈	이상준	윤지원	이인웅	오승경	정윤성
서효진	진성권	한미영	한세미	무명4				

생일감사헌금

권혁순 박혜경 배삼순 조윤경

녹색꿈헌금

김범진 김미현 김정님 김향자 이진영 한양미 무명1

	백혜숙	박성희	정두리	야외
	신진식	최경미	이소순	서원금
	장영숙	신영신	장영숙	박경원
	노순옥	진정숙	노순옥	정선희
	박홍재	박홍재	문복순	정선희
	권미숙	박미영	배삼순	정선희
	김금순	김금순	김금순	정선희
	곽권희	윤수진	김필순	정선희
	안홍숙	오현정	김명희	정선희
	정영선	홍춘숙	김송양	정선희
	박혜경	박혜경	조항미	이기분
	김재홍	오자영		
	김재홍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종		

간격

- 안도현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 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위선적인 율법의 세계에서 벗어나 참 생명의 세계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여러 고통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아브라함의 딸들’을 자유롭게 하며 사십시오.

아멘. 어려움에 처한 이에 대한 외면을 여러 기준으로 합리화하며 살아온 위선적인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틀을 넘어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4남, 6여선교회 주관 예배 설교 : 이범석 목사	옹기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인걸 장로	이진영 집사 곽상준 집사

6	영접위원	방문성 윤성종 송동준 안정숙 김윤정 김진경
	헌금위원	한완식 정경례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배척의 경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분명한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제는 사람을 죽일 뿐입니다. 나이트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배척입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경쟁의 논리와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되면서 힘없는 이는 힘센 자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배척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자리도, 희망도, 현실을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인간을 사용하다가 그냥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리는’ 문화를 만들어 왔고 지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단순히 착취와 억압 현상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어떤 것입니다. 배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사람들은 자유 시장으로 부추겨진 경제 성장이 세상을 더욱 정의롭고 평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낙수 효과’이론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이러한 견해는 경제권을 쥐고 있는 이들의 선의와, 지배적인 경제 체도의 신성시된 운용 방식을 무턱대고 순진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배척된 이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통스러운 절규 앞에서 함께 아파할 줄 모르고 다른 이들의 고통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그들을 도울 필요마저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지 우리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살자는 문화가 우리를 마비시키고, 시장에 새 상품이 나오면 사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반면에 기회의 박탈로 좌절된 모든 이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전혀 와 닿지 못하고 단순한 구경거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를 우리와 돈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지배하도록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금융위기는 그 기원에 심각한 인간학적 위기가 있다는 것도 간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곧 인간이 최우선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고대의 금송아지에 대한 숭배가 돈에 대한 물신주의라는, 그리고 참다운 인간적 목적이 없는 비인간적인 경제 독재라는 새롭고도 무자비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융과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세계적 위기는 그 자체로 불균형을 보여 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간 이해에 대한 심각한 결여를 보여 줍니다. 인간을 인간 욕구의 하나로만, 곧 소비욕의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

이러한 태도 뒤에는 윤리와 하느님에 대한 거부감이 숨어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윤리를 경멸에 찬 냉소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윤리가 돈과 권력을 상대화하기 때문에 비생산적이고 지나치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을 조작하고 타락시키는 것을 단죄하기에 윤리를 위협적이라고 느낍니다. 궁극적으로 윤리는 시장의 범주를 벗어나는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하시는 하느님께 우리를 이끕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금융 전문가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옛 현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권고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금융개혁에 윤리적 고려가 반영되려면 정치 지도자들의 강력한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개별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결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러한 도전에 맞서도록 촉구합니다. 돈은 봉사해야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교황은 모든 사람을, 곧 부유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똑같이 사랑하지만,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돕고 존중하고 복돋워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깨워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심 없는 연대성을 지니고 경제와 금융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윤리로 되돌아갈 것을 권고합니다.